

새싹 편지

2010. 8. 9 월 호



Woosong News

- 여름 영어 캠프
- 우송 리더스 크로톤빌
- 수시 1차 모집 안내
- 금요 교양 영화 상영
- 다문화 프로그램 1탄

Our Story

- 2학기 수강과목



2010 Summer Children English Camp



이번 2010년도 여름방학에는 우송대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원어민 교사 네 명과 원어민 보조교사 두 명, 그리고 유아교육과 학생들인 한국인 인솔교사 두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어캠프는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4주간



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신청학생들은 사전에 모여 레벨테스트를 받았고, 수업은 수준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캠프는 솔브릿지국제대학 8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전프로그램은 솔브릿지에서 준비되어진 교재와 원어민에게 노래를 배운다던지, 동화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해 퀴즈를 풀거나 토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오전수업이 끝나고 점심식사를 한 후의 프로그램은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영이나 스트레칭, 쿠키 만들기, 짐

볼 활동 등으로 오전수업의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간식을 먹은 후의 오후프로그램은 동화나 대본을 보고 직접 주인공이 되어서 연기하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9시에 시작되어 4시에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8월 18일에는 프리젠테이션과 수료식이 열려 그간의 아쉬움을 달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오후 프로그램에서 연습했던 연극을 발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수료식에는 교사와 총 책임자, 그리고 참가자들의 부모님도 함께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송 리더스 크로톤빌

우송대학교에서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우송 리더스 크로톤빌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컨셉으로는 자발적 인지 동기부여, 목적, 비전, 판단의 실행의지와 미래형 인재역량 개발의 결과를 도출하고 학교에 도움이 될 미래형 리더를 만들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프로그래밍으로는 학교내에서 이루어진 WOOSONG GLOBAL VISION 2020, WORLD STUDENT PLAN 의지와 교내 특강 프로그램 최종 선정 시행과 외부에서는 창의적인 미래형 리더를 만들기 위해 예술과 창조를 바탕으로 자기화 목표 실행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분야로는 미술, 미디어 아트, Book Art, 클래식 공연문화, 시나리오 작성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교육부문에 글로벌 리더십과 HRD 교육, 글로벌 리더십을 주제로 기초교육, 명사특강, 기업탐방, 국제적 대학경쟁,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 글로벌 정세주목, 대학발전과 학생의 의식개발과 목표설계 지표 도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프로그램, 국외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총 2주 동안의 뜻깊은 시간을 남겼습니다.



나도 한마디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 - 이지]

우송 리더스 크로톤빌 프로그램은 우송대학교가 우리 우송인을 위한 미래 리더의 '비전과 창조'라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 한만큼 우리 우송인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비전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기억하고 배운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해나감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유익함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해진 프로그램에서 얻었던 미래 리더로서의 역량도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또 같은 미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함을 통해 서로를 느끼고 배려하고, 정을 나눔으로 인해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루하루가 2주 동안의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했으며,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하루의 기억을 영원한 추억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2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 연장선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의 추억을 벗 삼아 함께 한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글로벌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도 한마디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 - 이민지]

크로톤빌을 참가하면서 리더십 향상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국내교육을 받으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얻을 수 있던 게 더 많아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여러 유명대학을 탐방하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값진 경험을 한 거 같아서 어땀방학이 매우 보람되고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마디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 - 김민정]

크로톤빌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내가 해 나가야 할 나의 길을 찾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국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보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았고 중국 명문대 탐방을 하면서 만났던 학생들을 보고 나도 학업에 좀 더 충실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국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던 기회를 가졌고, 그 꿈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또한 내가 미래에 대해 계획한 것을 많은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으로 인해 자신감이 생기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도 한마디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 - 김수정]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창의적인 생각과 오픈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여행으로 더 넓은 세상을 접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짐으로써 글로벌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자세를 배웠으며, 2주라는 짧고 긴 시간 동안 함께 한 크로톤빌 식구들과의 우정을 쌓아 더 넓은 대인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 자신을 표현하는 법과 팀 활동에서의 협동심을 배우고, 내 미래의 꿈을 실현 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배워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의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나도 한마디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 - 금창희]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 어려웠던 나에게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프로그램이었고, 잃었던 자신감과 꿈을 되찾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음으로써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시 1차 모집 안내

2010학년도 우송대학교 수시 1차 모집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구분		기간	비고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2010.09.08(수) ~ 09.17(금)	전형료 30,000원 마감일 18L:00까지 제출서류 마감일 : 9.24(금)
	방문 접수	2010.09.16(수) ~ 09.17(금)	
입학 사정관 전형 1단계 서류 평가 합격자 발표		2010.10.01(금) 10:00	본 대학교 홈페이지
면접고사	일반전형 특별전형	2010.10.08(금) ~ 10.09(토) 중 택일	09:30~12:00/13:00~1700
	입학사정관전형	2010.10.05(화) ~ 10.07(목) 중 실시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후 개별면접일자 홈페이지 안내
합격자 발표	일반학과	2010.10.28(목) 10:00	본대학교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예치금)		2010.12.13(월) ~ 12.15(수)	본 대학교 지정은행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최종 합격자 등록		2011.02.07(월) ~ 02.09(수)	



1년 4학기 공부하는 대학 우송대학교
2가 관습이라면 4는 혁신이다

유아교육과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모집단위	전공	수시1차						
		일반전형	정원내				정원외	
			독자적 기준	영어 우수자	일본어 우수자	입학사정관 전형	농어촌 학생	전문계고교 졸업자
보건복지 대학	유아 교육과	34	5	-	-	5	4	3

지원자격, 성적 배점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우송대학교 입학종합서비스의 수시1차 모집부분을 참고하세요. 수시 면접 기출문제 또한 제시되어 있으니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금요 교양 영화 상영

우송대학교 창의학력증진센터에서는 학생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 2010학년도 2학기에 '금요 교양 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기간은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씩 금요일 17시부터 19시까지 진행합니다. 장소는 우송대학교 서캠퍼스의 가정관 1층 시청각실로 우송대학교의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 가능하며 관람료 또한 무료라고 하니 한번쯤 관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 상영표를 소개합니다.

날짜	상영 예정 영화
9월 3일	아이엠 샘
9월 17일	오페라의 유령
10월 8일	Painted Skin
10월 22일	천국의 아이들
11월 5일	집으로 가는 길
11월 26일	카드로 만든 집
12월 17일	러브레터

또한 가정관 로비에서는 간단한 간식이 제공될 예정이니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 - 김은지]
전에 보았던 영화지만 엄청 감명깊게 봐서 다시 한번보고 싶었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딸의 마음에 크게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이기 때문에 유아의 양육에 대한 법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좋았습니다. 또한 이런 기회가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열린다는 것에 대해 기대가 되고 다시 꼭 참여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 1탄

2010년 9월 11일에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주축이되어 실시한 다문화 프로그램 제 1탄 추석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송관 509호에서 '솔이의 추석이야기'라는 동화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유롭게 자유선택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윷놀이, 투호놀이, 필리핀 전통놀이인 티니클링, 일본의 전통놀이인 켄다마, 하네츠키, 중국의 전통놀이인 콩쥬, 베트남 전통놀이인 따까오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할머니네 집에 가요'라는 보드게임과 우리가족 그리기, 솔이의 추석이야기 퍼즐 맞추기들을 할 수 있도록 교실과 복도에 적절히 배치해 두었습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인 James 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게임들을 하여 아이들은 정말 재밌어 했습니다. 그리고 솔파인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은 뒤 도예를 하러 사회체육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소개를 하신 뒤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찰흙을 이용해 다양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활동은 두시간동안 이어졌으며 설문지를 작성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한마디

[봉사에 참여한 소감 - 정소영]
이 다문화가정캠프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고 어려웠던 점도 있었는데, 막상 하고나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을 재미있게 즐겨주니까 굉장히 뿌듯했고, 교사가 되기 위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없어 다문화 가정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2개 국어를 배울 수 있고 두 나라의 문화를 함께 접할 수 있는 등 다문화가정의 좋은 점에 대해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Our Story



2010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소개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은 1학기 내내 지루한 이론을 끝마치고 2학기에 들어서 수업시간에 많은 활동들이 있어서 이제야 정말 유아교육과에 온 것 같다는 말을 내뱉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1학기와 똑같이 대학영어/대학일본어, 영어회화를 듣게 됩니다. 또 교직이수 과목으로는 교육철학 및 교육사를 배우게 됩니다. 한 1학년 A반 학생은 교직과목 이수를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소 내용이 어려워 시험기간에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수학에 접할 수 있는 기초통계학을 배우는데 이번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자신이 학창시절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다며 불만의 얼굴을 내비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행복한 수업시간도 있습니다. 먼저 Freshman seminar로 1학기 때 참여하지 않았던 나머지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평소 대하기 힘들었던 교수님과도 친해질 수 밖에 없는 친목도모의 과목인 썸이라 교수님과 수업시간에는 하지 않는 학교생활의 일들, 교수님의 식사 등 다른 반 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한 시간짜리 수업이지만 학생들과 교수님, 둘 다 만족스러워하는 수업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보다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이 즐겨워하는 수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전공수업으로 유아미술(배인자교수님)수업과 놀이지도(성원경교수님)수업입니다.



1학기에도 수업시간에 조별활동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교수님 지도에 발 맞추어 유아교육과 다운 실습다운 실습을 해보는 것이 처음이라며 첫 유아미술시간을 앞둔 1학년 학생들은 설레어 했습니다. 성원경교수님의 경우에는 여름학기 때 처음 본 교수님이었지만 전공수업은 처음인지라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자신의 인생그래프와 자신의 2학기 동안의 목표를 써서 제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2학기생활을 생각해보고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즐겨워했습니다. 1학년 때는 이론만 할 것 같아 지

루할 것 같았던 학교생활이 활동들을 함으로서 즐거워 질 것 같다고 학생들은 전했습니다.

이어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아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 심리를 아우르는 교육을 하는 아동심리, 활동 중 언어나 수학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그 개념들과 활동들을 배워보는 유아언어교육, 유아수학교육, 또한 학과의 특성에 맞춰 여태껏 다루지 않았던 영아와 영아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취업 전략과 커리어 개발, 그리고 우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유아 교재 연구, 그리고 그 지도법, 교재 연구와 흡사한 개념이 포함된 교육 공학, 그리고 기악 반주법에 이은 기악 응용, 마지막으로 1학년 때부터 계속 해오던 대학 영어, 대학 일본어, 영어 회화의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은 지금까지 해오던 내용과 분절된 것이 아닌 연속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습을 하지 않아 힘들어 하고는 있지만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과목마다 개인과제, 조별과제들이 넘쳐나고 있어 학생들은 피곤에 젖어 있거나 과제로 인해 바쁜 모습들이 캠퍼스 곳곳에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생 모두의 공통된 생각으로 2학기 때는 꼭 성적을 올리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ECE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과 화이팅!

